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☎ 02-729-6252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8.1

참! 좋은 은행
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 국 :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

유로존 :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대감 증가

중 국 : 4/4분기 경제성장률 6.8%, 2017년 연간 6.9% 성장

일 본 : 양호한 내수 및 수출 등 경기개선세 지속, 테이퍼링 계획 발표

한 국 :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소비·투자는 양호했지만 생산·고용은 부진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* 종료 * 일시적 업무정지

○ 1.22일(현지시간) 3주 임시예산안(~2.8일)에 양당이 합의하며 3일만에 연방정부 정상화

- 금번 셧다운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양당 입장차이*가 주원인

* 불법체류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과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해 여당은 찬성, 야당은 반대

- 정식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.8일 이후 셧다운 재연 우려

○ 소매판매는 4개월 연속 5%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도 2%대 상승세 유지

※ 소매판매 증가율(%) : 2.6('15) → 3.2('16) → 4.2('17)

- 고용시장 개선*과 세제개편 등으로 임금상승 기대가 커지고 소비심리가 개선됐기 때문(전미소매연맹) * 실업률은 3개월 연속 17년만에 최저치인 4.1%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5	1.8	2.0	2.2	2.3

월지표	'16.12월	'17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3.8	3.7	3.5	5.0	5.0	6.0	5.4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2.1	1.7	1.9	2.2	2.0	2.2	2.1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15.5	13.8	20.8	3.8	21.1	25.2	14.8
실업률(%)	4.7	4.3	4.4	4.2	4.1	4.1	4.1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0.8	1.7	1.4	1.7	3.4	3.5	3.6

□ 유로존,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대감 증가

○ 무역수지 흑자 확대, 실업률 하락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경기호조세 지속

- (무역수지)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(전년동월대비 7.7%)이 수입증가율(전년동월대비 7.3%)을 상회하여 무역수지는 '17.3월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인 263억유로 흑자 달성
- (실업률) 높은 수준을 보이던 스페인, 포르투칼,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8.7% 기록
- (기대인플레이션) 경제성장세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11개월만에 최고치인 1.752% 기록

○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'18년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주요국 내수성장으로 유로존이 잠재성장률(1.5%)을 웃도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9	2.1	2.4	2.8

월지표	'16.12월	'17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2.8	3.7	3.9	3.4	3.9	3.2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.5	2.3	2.3	4.1	0.2	2.8	
실업률(%)	9.7	9.0	9.0	8.9	8.8	8.7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1	1.3	1.5	1.5	1.4	1.5	1.4

□ 중국, 4/4분기 경제성장률 6.8%, 2017년 연간 6.9% 성장

○ 하반기들어 부동산·환경오염 등 규제강화로 생산과 투자가 둔화되었음에 불구하고 하반기 6.8% 성장하며, '16년 성장률(6.7%)과 '17년 예상(6.8%)을 상회하는 6.9% 성장 기록

-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출증가가 성장동력으로 작용

※ 3차 산업생산(전년동기대비, %) : 7.7('16.Q4) → 7.7('17.Q1) → 7.7(Q2) → 7.8(Q3) → 8.0(Q4)

※ 부문별 성장기여도('16년 → '17년, %p) : 소비 4.3 → 4.1, 투자 2.8 → 2.2, 순수출 △0.5 → 0.6

- 12월 소비는 자동차판매가 크게 줄며(14.4%, '16.12월 → 2.2% , '17.12월)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, 수출은 對선진국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증가세 지속

○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'17년 중국 국유기업의 양호한 경영실적이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며 실물경기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(1.15일)

- 매출과 이익이 13.3%와 15.2% 증가하며, 각각 5년 6년만에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

분기지표	'16.Q4	'17.Q1	Q2	Q3	Q4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8	6.9	6.9	6.8	6.8

월지표	'16.12월	'17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0	6.4	6.0	6.6	6.2	6.1	6.2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9	10.4	10.1	10.3	10.0	10.2	9.4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8.1	8.3	7.8	7.5	7.3	7.2	7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6.1	7.2	5.5	8.1	6.9	12.3	10.9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년동월대비, %)	10.8	9.3	8.2	6.5	5.7	5.5	5.8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2.1	1.4	1.8	1.6	1.9	1.7	1.8

□ 일본, 양호한 내수 및 수출 등 경기개선세 지속, 테이퍼링 계획 발표

○ 11월 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) 2.1%, 소비지출 1.7%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세 뚜렷

※ 소비지출(전년동월대비, %) : 2.3('17.6) → △0.2(7) → 0.6(8) → △0.3(9) → 0.0(10) → 1.7(11)

○ 11월 수출도 16.2%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되며, 생산 3.7%, 출하 2.4%를 기록

○ 1.9일 BOJ는 장기국채 매입 규모 축소계획을 발표

- 잔존만기 10~25년 국채매입 규모를 100억엔 축소(2,000억엔 → 1,900억엔)

※ '17년 잔존만기 25~45년 국채매입 규모를 기존 900억엔에서 800억엔으로 축소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0.9	1.5	1.5	1.6	2.1

월지표	'16.11월	'17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4.4	5.5	4.7	5.3	2.6	5.9	3.7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.7	2.2	1.8	1.8	2.3	△0.2	2.1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9.7	13.4	18.1	14.1	14.0	16.2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0.4	0.5	0.7	0.7	0.8	0.9

□ 국내,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소비·투자는 양호했지만 생산·고용은 부진

○ 11월 투자 및 소비는 증가했으나 생산은 부진

-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(11.7%)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.3% 증가
- 소매판매는 내구재(12.7%), 비내구재(3.6%), 준내구재(4.5%) 판매가 모두 늘어 6.5% 증가
-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, 자동차 등이 줄어 1.8% 감소

○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.9% 증가해 491억달러(14개월 연속 증가, 일평균 21.8억달러) 기록

- (품목별) 13대 주력품목 중 7개 품목 증가, 메모리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급증세는 지속
  ※ 품목별 : 반도체(64.9%), 석유제품(29.5%), 석유화학(21.9%), 컴퓨터(13.8%)
- (지역별) 중국으로의 수출이 사상 최대(138.4억달러)를 기록한 반면 미국·EU·중동 수출은 감소
  ※ 지역별 : 아세안(29.4%), 중국(14.9%), 일본(11.1%), EU(△9.1%), 미국(△7.6%)

○ 12월 취업자수는 제조업·건설업이 늘었으나 서비스업이 줄어 25.3만명 증가에 그침

- 제조업은 수출확대에 따른 설비 증설 등으로 취업자수가 늘었으나, 서비스업은 둔화
  ※ 취업자수(만명) : 28.9('16.12) ⇒ 31.4('17.9) → 27.9('17.10) → 25.3('17.11) → 25.3('17.12)
- 청년 체감실업률은 21.6%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청년 취업애로가 지속

○ 가상화폐 투자 과열로 「가상화폐 과세 또는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방안」 검토,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수준으로 하락(2,500만원(1.7일) → 1,200만원(1.17일))

- (가상화폐 관련 정책 현안) ①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 ②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③블록체인 기술 투자 활성화 ④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(1.30일 예정) 등
- 현재,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상품과 분리되어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, 투자손실에 따른 소비위축 등 우려도 일부 제기

분기지표	'16.Q4	'17.Q1	Q2	Q3	Q4
GDP(전기대비, %)	0.5	1.1	0.6	1.5	△0.2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4	2.9	2.7	3.8	3.0

월지표		'16.11월	12월	'17.8월	9월	10월	11월	12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5.6	4.4	2.5	8.9	△6.3	△1.8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4.5	4.5	2.4	8.8	△6.9	△0.3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△6.5	△5.9	3.2	2.0	6.3	5.7	
	평균가동률(%)	73.7	72.7	72.0	72.0	71.3	71.3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2.6	1.9	2.1	5.3	△0.3	4.1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3.2	1.8	0.9	8.4	△0.2	6.5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10.2	10.5	12.4	25.0	△3.8	6.3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28.9	17.0	13.9	23.9	3.4	4.1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1.5	1.3	2.6	2.1	1.8	1.3	1.5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4.1	104.2	107.7	107.8	108.3	109.0	109.7
실업률(%)		3.1	3.2	3.6	3.4	3.2	3.2	3.3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2.3	6.3	17.4	34.9	6.7	9.6	8.9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9.4	8.0	15.4	22.6	7.9	12.8	13.6